

돌아가는 삼각지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5.	조사자	정화영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돌아가는 삼각지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배호	작사가	이인선	작곡가	배상태
음반 제작연도	1967년	음반 제작사	아세아레코드	음반 규격	310mm×310mm
가사	<p>삼각지 로터리에 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 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p> <p>삼각지 로터리를 헤매 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 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 왔다 돌아가는 삼각지</p>				
평가	<p><돌아가는 삼각지>는 신장염에 걸려 거동조차 어렵던 배호가 병상에서 취입한 노래이다. 처음에는 ‘병자의 노래’ 같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한 배호가 노래를 다시 취입했고, 취입 4개월 후에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배호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다. 이 노래를 작곡한 배상태는 노량진에서 전차를 타고 충무로까지 출퇴근하면서 ‘삼각지’라는 지명에 흥미를 느꼈고, 작사가 이인선은 어느날 삼각지에서 연인과 이별하고 홀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노랫말을 썼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1967년 당시에 삼각지에는 4방향 회전 입체 교차로가 있었다고 한다. 노래는 그 시절의 입체 교차로를 떠올리게 한다.</p> <p><돌아가는 삼각지>가 배호의 목소리로 나오기 전까지 여타 가수들의 손을 거치기도 했다. 당대 최고 인기가수였던 남일해는 바쁜 일정 때문에 노래 취입을 못했고, 금호동은 노래 취입을 거절했다. 작곡자 배상태는 남진이 불러주길 바랐으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당시 무명 가수였던 김호성이 녹음까지는 했으나 음반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배호의 노래로 나온 것이 <돌아가는 삼각지>인 것이다.</p> <p>특유의 저음으로 도시의 서정을 노래하는 배호는 당시 대표적인 남성 트로트 가수였다. 트로트하면 보통 향토색이나 지방색과 연결되는 것과 달리, 도시의 감성을 노래하고 있어 배호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처음에는 아세아레코드에서 발매한 컴필레이션 음반에 수록되었던 <돌아가는 삼각지>는 같은 해에 재발매되기도 했다. 2000년 11월에 교차로가 있던 자리의 인근 도로에 ‘배호길’이 생겼고, 2001년에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노래비가 들어섰다.</p>				

2. 보존필요성

- 196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활용방향

-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배호(본명 배신웅) (裴湖 , 1942년 ~ 1971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2년 중국 산둥성 출생 - 1945년 광복 이 후 인천수용소 거쳐 서울 창신동 거주 - 1954년 서울 창신 초등학교 졸업 - 1956년 삼성중학교 2학년 중퇴 - 1958년 '김광빈악단' 과 '김인배악단' 에서 드럼 연주 활동 - 1960년 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관할 클럽에서 악단 생활 - 1963년 예명 '배호' 로 가수 데뷔 - 1964년 「황금의 눈」 1집 음반을 낸 뒤 본격 솔로 가수 활동 - 1967년 신장염 발병 - 1971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지병인 신장염으로 사망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노래 「굿바이」, 「사랑의 화살」 - 1964년 노래 「두메산골」 - 1967년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 1970년 노래 「비내리는 명동」 - 1971년 노래 「마지막 일새」, 「0시의 이별」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MBC 10대 가수상 및 TBC 방송가요대상 수상 - 2003년 옥관문화훈장 수여 		
기타사항	-		

※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배호] (<http://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배호] (<http://terms.naver.com>), 네이버 뮤직 [배호] (<http://music.naver.com>)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이인선 (1941년 ~ 2014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1년 서울 출생 - 1961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 1965년 「그대 꿈꾼 밤」 작사가로 데뷔 - 1970년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 1994년 홀로 서울 영등포구로 귀국 - 2014년 질병으로 사망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년 작사 「돌아가는 삼각지」 - 1968년 작사 「네일 크로마」 - 1970년 작사 「이정표 없는 거리」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인선] (<http://terms.naver.com>),
한겨레음악대사전 [이인선] (<http://terms.naver.com>)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배상태 (裵相台 , 1939년 ~ 현재)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경상북도 성주군 출생 - 1956년 대구 KBS 전속 가수 활동 - 1960년 서라벌 예대 졸업 - 1963년 해병대 군악대 제대 및 「송죽부인」 작곡가로 데뷔 - 1966년 아세아 레코드사 전속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년 작곡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 1970년 작곡 「사랑했노라고」, 「해변」 - 1971년 작곡 「0시의 이별」, 「마지막 잎새」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 제 3회 핑크 리봉상 신인 작곡상 및 제 2회 서라벌 가요대상 특별상 수상 - 1969년 제 4회 야담과 실화 히트 작곡 수립상 및 실버글로리 은곰상 작곡상 수상 - 2016년 제 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 		
기타사항	-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배상태]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배상태]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6. 기사사항

□ 가요앨범 리뷰 -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의 대표작 <돌아가는 삼각지>를 처음 수록한 음반

1967년 2월 아세아레코드에서 배호의 대표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처음 수록한 음반이다. 총 12곡을 담은 이 음반은 배호, 안다성, 남일해, 김복자 등 11명의 가수가 참여했으며, 전형적인 1960년대 스타일의 컴필레이션 음반이다.

사실 <돌아가는 삼각지>는 지금은 철거되어 사라진 삼각지 입체 교차로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하지만 이 노래는 입체 교차로가 건립되기 전인 1963년에 이미 작곡이 마무리되었던 곡이다. 당시에는 서울 전차가 삼각지를 지나다녔고 분수대도 있었다.

이 노래의 작곡자 배상태는 노량진에서 전차를 타고 충무로까지 출퇴근하면서 ‘삼각지’라는 지명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삼각지에서 연인과 이별한 사내가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작사가 이인선이 가사를 쓴 노래가 <돌아가는 삼각지>였다.

지금은 국민가요로 사랑받고 있지만 이 노래는 완성 후 3년간 노래할 가수를 찾지 못했다.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남일해는 바쁜 스케줄 탓에 이 노래를 연습만 몇 번 하다가 말았고, 인기 가수 금호동은 “이런 구닥다리 노래를 왜 부르느냐”며 노골적으로 거절했다. 배상태는 당시 잘나가던 신인 가수 남진이 노래를 취입해주길 바랐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돌아가는 삼각지>는 아세아레코드의 무명 가수 김호성이 처음 녹음했지만 음반으로는 제작되지 못했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찾아간 가수 배호

자존심이 상한 작곡가 배상태는 서울 을지로 천치카바레에서 신나게 드럼을 치며 노래하던 배호를 떠올렸다. 그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서울 청량리 인근에 있던 배호의 허름한 전셋집을 찾아가 그에게 <돌아가는 삼각지>의 악보를 건넸다.

당시 신장염에 걸려 거동조차 힘들었던 배호는 처음에 노래 취입을 사양했다. 하지만 쓸쓸한 노래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낀 뒤 마음을 바꿔 가래를 뱉어가며 병상에서 취입을 강행했다. 음반에 수록한 오리지널 버전 <돌아가는 삼각지>는 박자가 일부 끊기고 목소리 역시 병색이 완연하다. 그 때문에 노래가 처음 발표되자 대중은 ‘병자의 노래’, ‘깡패소리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강 회복 후 재녹음한 <돌아가는 삼각지>의 인기

이 후 건강을 회복한 배호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다시 녹음해 발표했다. 그 바람에 이 앨범은 같은 해에 나온 초반과 재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음반 번호는 AL123으로 같지만, 재킷 이미지와 수록곡은 다소 차이가 있다.

초반에서 배호의 사진은 흑백으로 장식됐지만, 재반에서는 배호가 증절모를 근사하게 쓴 컬러 사진으로 바뀌었다. 초반 <비겁한 맹서>에는 배호의 노래로 <돌아가는 삼각지> 1곡을 실었지만, 재반에는 <인생나루> 3곡을 수록했다. 대신 1면에 있던 최유진의 <옛날의 영자가 아니에요>, 백야성의 <마도로스 연정> 2곡은 빠졌다.

배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다시 취입한 이 노래는 4개월 후 KBS 대구방송 가요 차트 8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돌아가는 삼각지>는 장장 5개월간 정상을 석권하는 놀라운 상업적 성과를 올렸다.

서울의 지명이 담긴 대표적인 노래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대중들은 ‘우리 것’을 존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당대 젊은 가수들은 노래 제목에 전국 각지의 지명을 넣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 반면 트로트 장르는 평범한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며 적극적으로 각 지방의 지명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다.

여성 트로트 가수의 상징인 이미자나 하춘화의 노래에 전국 각지의 지명이 무수하게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서울의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 배호의 노래도 예외는 아니다. 배호의 대표곡에는 삼각지, 장충단 공원, 명동거리 등 서울의 지명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60년대의 젊은 대중은 배호의 트로트 노래를 존스럽기보다는 세련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형식은 트로트였지만, 세련된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재즈풍의 창법은 국내의 혼한 지명조차 세계적인 어느 도시의 지명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력을 발휘했다. 배호의 허스키 보컬은 당대 여성들의 애간장을 녹였고 사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그를 남성 트로트 가수의 상징으로 각인시켰다.

가수 이름을 딴 ‘배호로’와 노래비

배호가 <돌아가는 삼각지>를 발표한 후인 1967년 12월, 서울 최초로 삼각지로터리에 4방향 회전 입체 교차로가 생겼다. 이 입체 교차로는 개통된 지 27년이 지난 1994년 11월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통과를 이유로 전격 철거됐다.

2000년 11월에는 교차로가 있던 자리의 인근 도로 402m가 ‘배호로(路)’로 선정됐고, 2001년에는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들어섰다. <돌아가는 삼각지>는 이미자, 은방울자매, 박일남, 오기택, 나아, 조미미, 문주란, 이수미, 윤수일, 김연자, 이자연, 문희옥, 장사익, 밴드 레이지본 등 시대와 세대, 성별을 초월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국민가요로 자리 잡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돌아가는 삼각지 / 돌이서 울던 타향 (가요앨범 리뷰, 한국대중가요연구소)

□ 관련기사 - “[Music Episode]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에는 선술집이 많았다”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가 만들어진 건 1966년 4월. 노래 제목에 나오는 돌아가는 삼각지는 1967년 12월 30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네방향 회전 입체 고가차도를 말한다. 이 교차로는 서울의 교통 발전을 상징하는 곳으로 한동안 관광명소가 됐을 만큼 이름이 났었다. 노래 사연은 가사 내용 그대로다. 다만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상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만남과 사랑, 그리움과 이별의 애뜻함을 비오는 날 삼각지란 배경을 설정, 노랫말로 엮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노랫말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당시 삼각지는 어땠을까. 무엇보다 선술집들이 많았다. 국방부, 미8군, 계룡대로 옮겨간 육군본부 등 군기관들이 부근에 몰려있었고 인사동에서 옮겨온 액자 제작소, 상업화랑과 인쇄소, 상가들도 적잖았다. 자연히 부근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술집이 즐비했고 대구탕, 고깃집 등 식당을 겸한 술집들도 덩달아 재미를 봤다. 술집색시를 비롯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일. 삼각지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홍동가가 있어 삼각지는 이래저래 사나이들의 발길이 잦았다. 최근 뒤서리를 맞았지만 용산역앞 집창촌은 삼각지에서 한 잔한 뒤 2차를 ‘즐기는 코스’였을 만큼 호색한들의 구미를 당긴 곳이기도 했다. 술과 여자가 있으니 술한 사연들이 생겨나는 건 인간사 당연한 일. 노랫말처럼 어느 비오는 날 한 젊은 남자가 연인을 만나러 삼각지를 찾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작사가는 서정적으로 잘 그려냈다. 대중가수 최초 ‘배호길’ 탄생 못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돌아가는 삼각지>의 입체 고가차로는 1994년 7월 8일 철거되고 이젠 지하철이 그 밑을 지나고 있다. 가까이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삼각지역이 있고 노래비가 선 곳은 아담한 숲 속의 쉼터로 꾸며져 있다. 관찰 관청인 용산구청에선 배호가 세상을 떠난 지 30주년이 된 2001년 11월 7일 노래 속의 장소에 노래비를 세웠다. 또 로터리 부근 500여m(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21번지에서 221~228번지까지)의 도로를 대중가수 최초의 ‘배호길’로 이름 붙였다. ‘교통섬’으로 불리는 쉼터 녹지대에 세워진 노래비는 환희의 여인상이 하늘에서 땅으로 사뿐히 내려서는 자세로 돌아가는 삼각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두 손을 양옆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위로 쳐든 모습이 그 옛날 삼각지 로터리를 돌아 쟁쟁 달리던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떠올린다.

출처: 엠디저널 2004년 11월 1일 기사내용 (<http://www.mdjournal.kr>)

□ 관련기사 - “[어떻게 지내세요] 이달 신곡 발표하는 ‘돌아가는 삼각지’ 작곡가 배상태씨”

작곡가 배상태(70)씨.
‘돌아가는 삼각지’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작곡했다. 이 노래는 올해로 발표된 지 꼭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심금을 울린다. 특히 29세에 요절한 저음 가수 배호가 불렀기에 더욱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1966년 4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서울 노량진이 집이었던 배상태씨는 전차를 타고 삼각지를 지나던 중 창밖의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접하고 문득 우수에 사로잡힌다. 앞서 김포 해병대 군악대 시절 용산역에서 고향인 대구행 열차를 탔을 때의 광경도 스쳤다. 삼각지 일대의 허름한 선술집, 주변의 수많은 군인들...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악상을 메모했다. 며칠 뒤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남진과 남일해, 금호동 등을 섭외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고심하던 배상태씨는 우연히 ‘두메산골’ ‘굿바이’ ‘황금의 눈’을 부른 배호의 음성을 들었다. 무릎을 탁 친 배상태씨는 그길로 청량리 단칸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배호를 찾았다. 배호는 종로2가 궁전가 바레에서 드림을 치고 있을 때였다. 얼마 후 ‘돌아가는 삼각지’는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애창가요가 됐다.

출처: 서울신문 2005년 7월 5일 기사내용 (<http://www.seoul.co.kr>)